

SINCE 1984 · Monthly Art Magazine

美術世界

01

2014
vol. 350

www.mise1984.com

Cover artist
남궁원

Special
2014 기다려지는 것들
2013 남겨진 것들

9 771227 606504 01
ISSN 1227-6065

월간 미술세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년도 우수콘텐츠 잡지,
제1회 문화관광부선정 우수 잡지, 제39회 잡지의날 대통령상 수상

여성에 관한 2개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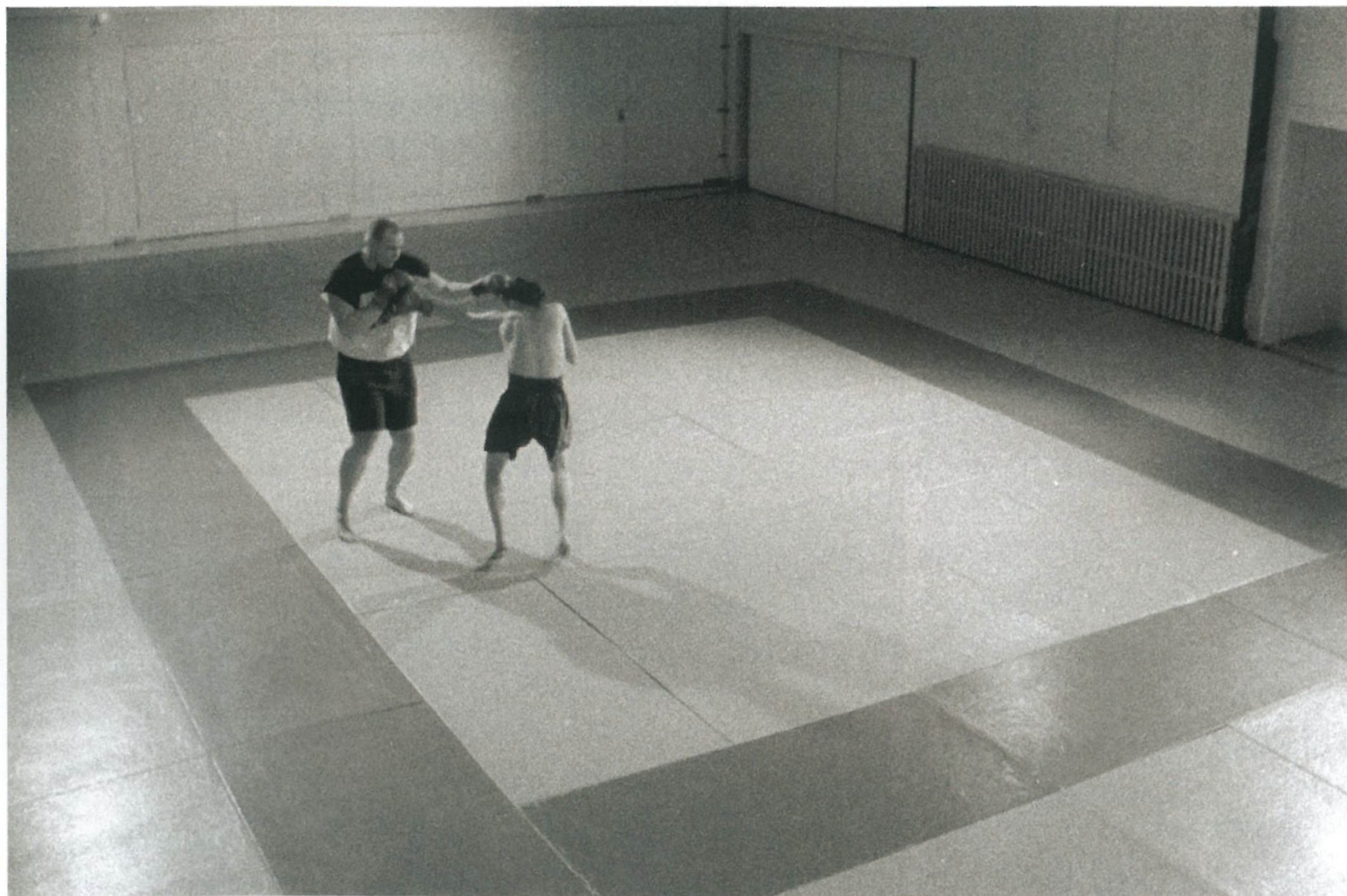
《Tell Me Her Story》/ 2013.10.17.~12.14/ 코리아나미술관

《여(女), 유(癒)》/ 2013.10.8.~12.15/ 문화공장오산(오산시립미술관)

두 전시 《Tell Me Her Story》와 《여(女), 유(癒)》는 여성에 관한 주제로 선보였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안에 여성의 위치는 역사와 사회, 관념의 입장에서 비롯된 사상과 의식 체계의 구조나 경향에 맞물려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전시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여성의 지위나 인권을 떠나 스스로 인간 본연의 시각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글|박정원 기자

살라티카, 《Power》, 16mm
비디오 필름, 4분 15초, 1999



페미니즘과 여성주의 미술

이번에 소개 할 두 전시는 해외 여성작가 15명(14팀)이 참여한 《Tell Me Her Story》전과 주로 한국작가들(한국작가 20명/ 해외작가 2명/ 1팀)이 참여한 여성을 주제로 기획된 《여(女), 유(癒)》이다. 이 전시들은 모두 여성과 관련된 전시로, 여성이 주체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여성성을 인정하며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전시를 보기 전에 크게 서구의 페미니즘과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의 변천과정을 구분해 두면 그 재미가 배가 된다. 이 두 용어는 의미 면에서 해석하자면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1960년대 말 사회 전반의 여권신장 운동의 여파로 시작된 서구의 페미니즘 미술과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은 남성 중심의 성차별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에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키려는 시도가 공통적이다. 단, 서구보다 10여 년 늦게 시작된 1980년대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은 민중미술과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운동이었다.

두 전시의 기획 의도는 여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 첫째로 전시의 상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목적 안에서 전시가 기획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장품박물관과 함께 운영되는 코리아나 미술관은 2013년이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위해서 처음으로 화장품 박물관과 함께 국내외 여성작가만을 선정하여 《Tell Me Her Story》전시를 기획하였다. 문화공장오산의 《여(女), 유(癒)》는 오산시와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한 '2013 오산뷰티축제'를 주제로 한 기획전으로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여성의 부드러움과 치유를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경기도미술관 등에서 소장 작품을 부분 위탁받아 기획한 전시이다. 작가 선정은 여성에 관련된 주제로 작업하는 오산 출신 작가들을 비롯하여 작가의 성향보다 제작된 작품만으로 기획의도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번 전시들은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현재 활동



김수자, 《보따리 트럭_이민자들》, 1채널 비디오 프로젝트, 9분 17초, 2007
©:Courtesy of MAC/VAL, Paris, and Kimssooja Studio

하고 있는 여성에 관련된 주제로 소개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미술의 경향과 역사, 나아가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기회로 삼기에 좋을 것 같다.

2명의 여성 전시기획자

두 전시와 함께 두 여성 기획자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에 관한 주제를 떠나 국내에서 기획되는 전시에 대한 보도와 소개가 주로 특정 유명작가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획자에 대한 기획의도나 작가 선정의 이유를 알기가 힘들다는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2차적인 이유에서였다. 그 이전에 화장품미술관이란 운영 목적과 '2013 오산뷰티힐링축제'에 부합하는 공통주제인 '여성'을 풀어내는 기획자의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예산과 여러 조건에서 두 기관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기획 취지만을 두고 봤을 때, 《Tell Me Her Story》는 여성을 둘러싼 자전적 경험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 문학과 소설 등을 실재와 비실재의 간극을 오가며 여성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삶을 고발하거나 보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얘기하는 형식이다. 반면, 《여(女), 유(癒)》는 여자, 어머니, 모성, 섬세함과 같은 여성성을 인정하고 '여성'에 '치유'라는 개념을 덧입혀 파생되는



왼쪽페이지

델핀 발레,
《앙리에타 11번가》시리즈,
사진, 86×100cm, 2007,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Suzanne
Tarasieve, Paris

오른쪽페이지

김수철, 《검은벌레_채집》,
2013, 《여(女), 유(癒)》
전시 전경

쉬린 네샤트,
《여자들만의 세상》, 영화,
99분, 2009

작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으며, 참여 작가의 성별 구분은 없다. 그리고 작가와 참여자들의 제3자를 위한 협업을 통해 치유라는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Tell Me Her Story》(코리아나 미술관) 전을 기획한 배명지 큐레이터와 《여(女), 유(癒)》(문화공장오산)의 목홍균 큐레이터는 모두 여성이다. 배명지 큐레이터는 2004년부터 코리아나미술관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대표전시로 《Remake Corea》(2005)를 시작으로 《이미지극장(Image Theater)》(2006), 《퍼포밍 필름(Performing Film)》(2013)가 있으며, 미술의 전문분야와 대중적인 아이콘을 흥미롭게 엮어내는 기획력을 보여준다.

《여(女), 유(癒)》전을 기획한 목홍균 큐레이터는 동양미학을 전공하고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해오면서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윤이상 국제음악상과 싱가포르 비엔날레의 기획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화공장오산을 개관부터 모든 업무를 통솔해 왔다. 문화공장오산은 오산의 유일한 미술관으로 창작스튜디오의 작가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도 도맡아 해오고 있다.

말하고 들어주는 그들

모든 작가들에게 해당되겠지만 두 전시의 참여 작가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관객들의 반응과 그들의 이야기를 포용하기를 기다린다. 성격이 다른 두 기획전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표현방법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로웠다.

하나의 소재를 시작으로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새로운 네러티브를 만드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Tell Me Her Story》전 델핀 발레(Delphine Balley, 프랑스)의 《앙리에타 11번가》시리즈는 가상의 인물 '마가렛'을 중심으로 19세기 소설과 실화를 기반한 작품이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 등장하는 인물 미스 하비삼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 속 마가렛은 히스테리아, 성, 유혹, 죽음 등이 암시된 불행한 삶의 주인공으로 그려진다. 《여(女), 유(癒)》전의 김수철은 2013년 3월 작업실을 이사하면서 한 짝씩 버려진 여자신발 수십 켤레와 당해 5월에는 낡은 건물에서 표본 서랍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전시를 위해 잊고 있던 이 재료들을 꺼낸 건 9월 즈음이다. 흑연을 깐 통에 폭 담갔다가 빼낸



후 표본서랍에 압핀으로 박아 넣었다. 이후 전시장에서 뿌옇게 김이 서린 표본 상자와 한 짝밖에 남지 않은 과거 신발이었던 오브제들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담은 채 그로테스크한 풍경을 연출한다.

관계에 대해 표현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비교해 보자면, 쉬린 네샷트(Shirin Neshat, 이란)는 이슬람 여성을 통해 젠더와 권력의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는데 출품작 <여자들만의 세상>(2009)은 1953년 쿠데타를 배경으로 네 명의 여성의 삶과 정치의 관계를 담고 있다. 이들이 모이는 과수원은 망명의 장소이자 여성들 간의 연대 속에서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김수자의 <보따리 트럭_이민자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직접 보따리 트럭을 타고 관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작가에게 보따리는 정착과 동시에 언제라도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인생 보따리이다. 이 작품들은 관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여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이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관계의 실질적인 '사람'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공허하고 다

소 역설적으로 비춰진다.

이외에도 《Tell Me Her Story》에서는 사회성이 담긴 네러티브와 저항과 해방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살라 티카(Salla Tykkä, 핀란드), 제인 진 카이젠(Jane Jin Kaisen, 덴마크), 미카 로텐버그(Mika Rottenberg, 아르헨티나)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반면, 《여(女), 유(癒)》전에서 이진의 <해부>와 권용택의 <끝나지 않은 노래>,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 이성실의 <무제>는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보이고 이에 대해 치유의 개념을 스스로 도입하여 불완전하게라도 추스르고 있는 상태에서 연민을 느끼게 한다.

이상 두 전시의 작품들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게 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주제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듯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페미니즘과 한국의 여성미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과거와 현대 역사를 짚어나가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자료

-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과 현실의식의 변천과정 : 19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박신애,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여성, 미술, 사회』, 휘트니 채드윅, 시공사, 1989
- 『글로벌 페미니즘과 한국의 여성작가: 최근 전시를 통해서 본 여성미술계의 지형변화』, 양은희, 2010